

다시 푸는 경서

진심직설(眞心直說)

1. 진심을 바르게 믿어라(眞心正信)

華嚴云信爲道源功德母
화엄은신위도원공덕모
長養一切諸善根
장양일체제선근
又唯云信如水滌珠 能消濁水故
우유신은신어수청주 능청탁수고
是知萬善發生 信爲前導 故佛經首立
시지만선발생 신위전도 고통경수립
如是我聞 生信之所謂也
여시아문 생신지소위야

아하는 자는 십선(十善)이 묘인(妙因)이 되어 인천의 낙과(樂果)가 된다고 믿으며, 공적(空寂)함을 좋아하는 자는 생명의 인연이 정인(正因)이 되고 고·집·멸·도가 성과(聖果)가 된다고 믿는다. 불교(佛果)를 좋아하는 자는 삼계의六道(度)가 큰 원인이 되고 보리와 열반이 정과(正果)가 됨을 믿는다"

眞心正信 非同前也 不信一切有爲因果
조문정신 비동전야 불신일체유위인과
只要信自己 本來是佛 天真自性
지요신자기 본래시불 천진자성
人人具足 涅槃妙體 箇箇圓成
인인구족 열반묘체 개개원성
不假他求 從來自備 三祖云圓同太虛
불가타구 종래자비 삼조운원동태허
無缺無餘 良由取捨 所以不如
무결무여 양유취사 소이불여
諸公云有相身中無相身 無明路上
지공운유상신중무상신 무명로상
無生路 永嘉云無明實性即佛性

<화엄경>에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로서 모든 선의 뿌리를 길러낸다' 하였고, 또 <유식론>에 '믿음이 물을 맑히는 구슬과 같음은 능히 흐린물을 맑게 하기 때문이다' 하였다. 이로써 온갖 선(善)이 발생하는 것은 믿음이 앞에서 이끌어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불경의 첫머리에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한 것은 믿음을 내기 하기 위해서이다.

믿음은 모든 선의 뿌리를 길러낸다

或曰祖門之信 與教門之信 有何異耶
혹왈조문지신 여교문지신 유하이야
曰多種不同 教門令人天 信於因果
왈다중부동 교문영인천 신어인과
有愛福樂者 信十善爲妙因
유애복락자 신십선위묘인
天爲樂果 有樂空寂者
인천위락과 유락공적자
信生滅因緣爲正因 善集滅道爲聖果
신생멸인연위정인 고태멸도위성과
有樂佛果者 信二劫六度爲大因
유락불과자 신삼겁육도위대인
善提涅槃爲正果
보리열반위정과

무성로 영가문무명실성즉불성
幻化空身即法身
환화공신즉법신

그러나 조사문의 바른 믿음은 교문과 같지 않다. 일체 유위법(有爲法)의 인과를 믿지 않고, 단지 자기가 본래 부처이니, 천진한 자성(自性)이 사람마다 갖추어졌고, 열반의 묘체가 모두에게 원만히 이루어졌으므로 다른 데서 구할 필요가 없고 본래 저절로 갖추어졌음을 믿는 것이다. 승찬(僧璨) 스님이 말하기를 "원만하기가 허공과 같이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지마는 취하고 버리는 생각 때문에 한결같지 않다" 하였고 지공(誌公)은 "상(相)이 있는 몸 가운데 상이 없는 몸이요, 무명(無明)의 길은 생(生)이 없는 길이다" 하였고, 영가스님은 "무명의 실성(實性)이 곧 불성이요, 허깨비 같은 헛된 몸이 곧 법신(法身)이다" 하였다.

누가 물었다. "조사문(祖師門)의 믿음이 교문(教門)의 믿음과 어떻게 다를까"

대답했다. "여러 가지로 다르다. 교문은 인연(人天)으로 하여금 인과(因果)를 믿게 한다. 그러므로 복락을 좇

역자 약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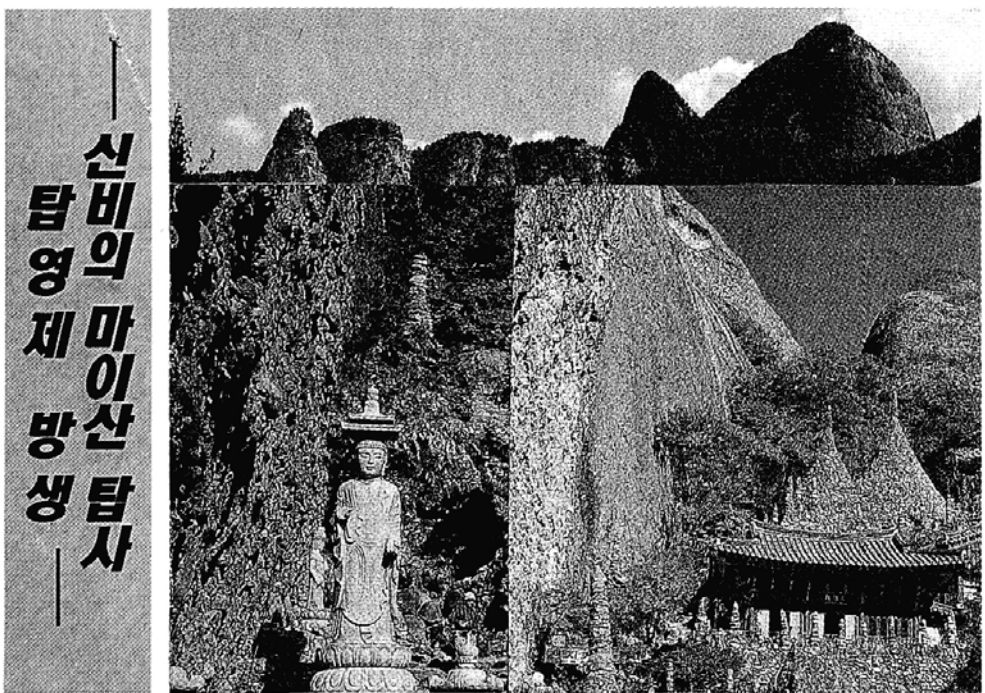
김일국
· 1941년 생
· 72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시조 당선
· 민족문화추진회 전문위원
· 현 동국대 역경위원
· 편 저서 <회부> <순기략은 밭밧을 모른다> 외 다수
· 수상: 만해불교문학상, 정문시조문학상, 중앙일보 중앙시조 대상

<진심직설>은 보조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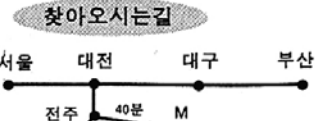
(普照國師) 지눌(知訥) 1158~1210의 저서 가운데 수심결(修心訣)과 함께 널리 알려진 법어집이다. 모두 15장(章)의 간결한 법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장마다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마음의 작용에 대해 설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불교는 깨달음에 있고, 그 깨달음은 지혜를 터득하는 데 있으며, 그 지혜는 마음의 작용을 살피는 데 있다. 자기가 곧 부처라는 말은 마음이 곧 부처라는 말이다. 이 <진심직설>은 이러한 마음의 변화를 일깨워줌으로써 불설(佛說)의 참뜻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하고 있다.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기왕이면 경치도 좋고 물도 가득차 있는 곳이면 더욱 좋겠지요.



한국의 불가사의 만불담의 오묘한 신비,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 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탐영제 방생기도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찾아오시는길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진주 40분 M 마이산
진안 마이산 탐사
전화(0655)33-2900,0303
32-0652,0072

큰스님 수행한담

“가족끼리 진리의 벗 되면

일화스님 (법륜종 종정)

불자들이 실제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는 어떠한가 하나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성취도와는 관계없이 누구나 한번쯤은 생각하게 되는 것이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느냐' 하는 그런 것과 같은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불자로서 생활하고 있는 것인지나 알고 믿지는 것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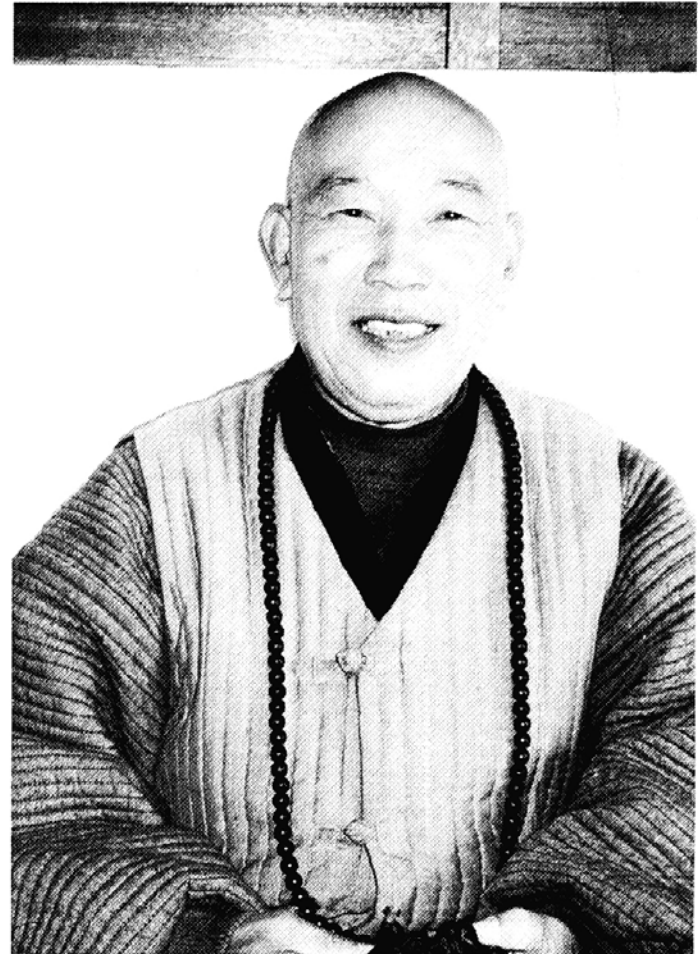
사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마음내기입니다. 목표가 분명히 세웠을 때 믿음이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믿음이 굳건히 자리 잡을 때 비로소 나의 말과 행동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성껏 하려는 노력과 실천이 따르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삶의 방향을 바로 잡게 되는 거지요. 그런 삶은 특별한 시간과 장소에 구애되지 않고 진리를 향한 항상일로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불교가 더욱 큰 발전을 할 수 있으려면 생활과 가정의 장을 더욱 중시 여겨야 한다고 믿습니다. 불교는 마치 우리 일상생활을 떠나있는 별도의 생활공간으로 되어있는 양 느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생활 따로, 불교생활 따로 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불교가 출가 승단을 중심으로 번성해온 것도 그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의 본분사를 생각하면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출세간의 가풍도 대단히 중요한 전통이고 정통이지만, 대다수 중생들이 삶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세간의 풍토에서 비로소 불교의 믿음이 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출가승단을 구성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재가의 삶을 무시하거나 천시한 적은 절대 없었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공동체인 승가가 출가와 재가의 사부대중으로 구성된 것을 보더라도 그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각자의 능력과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교단이 바로 불교의 교단인 것입니다. 더구나 대승불교가 일어날 당시에는 출가와 재가의 구분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깨달음을 향한 열려는 노력과 일체의 생명을 이롭게 하는 실천을 오롯이 하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불렀을 뿐입니다. 그런 보살의 불교가 오늘 한국불교의 주류로 실천되고 있는 대승불교인 것입니다. 유미의 불교, 승만부인의 불교, 방거사의 불교, 부설거사의 불교는 바로 이러한 대승 보살불교의 아름다운 꽃이랄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불자들은 삶의 생활한 장

인 생활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도량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가구는 슬기와 노력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생활터전인 가정에서부터 부모 형제가 진리의 길을 함께 하는 길동무로 삼아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또 부모와 자식이 마주 앉아 진리의 대화를 나누고 마음을 맑게 하는 실천을 함께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은 자랄로 사할과 같은 도량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중생은 곧 부처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단순한 구호나 관념이 아닙니다. 실천을 통해 체증되어야 할 진리입니다. 부처님께서 "보살이 능히 중생을 수순하면 곧 모든 부처님을 수순 공양하는 것이며, 중생을 받들어 섬기게 되면 곧 여래를 받들어 섬기는 것



- 1927년 충남 공주 생
· 40년 마곡사에서 금암스님을 은사로 득도
· 44년 마곡사에서 금오스님을 계사로 구족계 수지
· 45년 마곡사 불교전문강원 대교과 졸업
· 46년 동국대학교 문학부 입학
· 49년 대전공립중학교 교사
· 71년 태고종 중앙종회의원
· 90년 한국불교 법륜종 초대 총무원장 취임
· 현재 공주 원호사에 주석

“가족들이 모여 불경읽고 예불·참선 함께 하는 것은 아름다운 공업입니다”

이요, 중생들로 하여금 환희심이 나게 하면 곧 일체 여래로 하여금 환희케 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중생을 받들고 존경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을 받들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가장 깊은 인연으로 만난 부모와 자식 부부관계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부처님, 어머니 부처님, 아들 부처님, 딸 부처님, 남편 부처님, 아내 부처님이 모인 것이 가정입니다. 살다보면 의젓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또 마음을 상하고 얼굴을 붉히기 쉽습니다. 또 내 생각은 전혀 그러하지 않은 일

을 두고도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상대방을 원망하고 심하면 큰소리 거친 행동이 오갈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때가 내 마음을 돌아보고 공부할 수 있는 훌륭한 시간이고 인연인 줄 알아야 합니다. 달마대사는 원망과 증오를 받을 때면 "비록 현재의 고통이 지금 내가 저지른 과오 때문은 아니더라도 과거의 죄업이 결실한 열매이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에 대한 분노나 불만 없이 감내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내 또는 남편의 불만과 원망이 비록 터무니 없는 것으로 생각되더라도

도 그런 결과를 초래한 과거의 나의 말 행동 생각을 돌아보고 마음을 허공처럼 비움 줄 알고, 상대를 부처님의 씨알로 존중할 수 있을 때 우리의 공부는 익어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들이 함께 불교적 실천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들이 모여 불경을 읽고, 예불과 참선 열반 등을 함께 하는 일은 얼마나 아름다운 공업인지 모릅니다. 가정은 가장 훌륭한 보살도의 실천장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이란 특별한 인연으로 묶인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상없는 깨끗하고 순수한 배움을, 고운 말, 상대를 이롭게 하는 일, 더불어 일하는 실천은 가장 훌륭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귀한 사람이 손을 잡아 주면 훈훈하고 원가 얼어진 것같은 생각이 듭니다. 만약 부처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만져주시고 손을 잡아 주신다면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셔도 전달되는 것이 있을 것입니

1999학년도 동학사 승가대학 신입생모집

동학사 승가대학에서는 1999학년도 신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1. 모집학과 사미니과 00명
2. 시험과목 면접, 염불실기, 사미니율의, 불교기초교리, 초발심사경문
3. 입학자격 사미니계 수지자, 타승가대학생인 경우 2년 이상 휴학한 스님
4. 제출서류 (1)입학원서(본 승가대학 소정양식) 1통
(2) 주민등록증 양면복사 1통
(3)은사스님 추천서 1통
(4)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5)사진(반명함판 3x4) 3매
5. 준비물 오조가사, 장삼, 승려증, 필기도구
6. 시험일시 1999년 1월 27일(음 12월 10일)
7. 도착일시 1999년 1월 26일(음 12월 9일) 오후 4시까지
8. 문의처 충남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789번지
동학사 종무소 전화 : (042) 825-2570

· 교통편
· 대전본역 앞에서 좌석버스 1번, 102번 · 대전고속버스터미널, 동부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좌석버스 1번, 102번
· 유성시외버스터미널에서 좌석버스 1번, 102번 · 동학사 주차장에서 오후 2시부터 불교운행 함.

동학사 승가대학 학장 일연